박 목사님 그간 주 안에서 평안 하실줄 믿습니다.

2월 선교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곳 네팔은 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에 몸을 녹이면 간 밤의 추위가 눈 녹듯이 물러갑니다.

크리스챤 스쿨이 차츰 자리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전기 절약 하는법, 물 절약 하는 방법등을 일일히 학생들과 교사진들에게 몸소 시범을 보이고 감독을 하며 하나 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교육하도록 교사진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어서 학교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파송교회 (뉴욕 평강교회)에서도 저의 사역을 위한 후원 목장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기도 지원과 후원금 지원을 늘려 주셔서 감사 합니다 또한 박 목사님을 비롯한 여수와 재단에도 감사 드립니다.

